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8. 29. ~ 09. 04.

전남농업정보

100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사과·배 생산, 품질, 출하, 가격전망
- 감자·양배추 생산, 출하, 가격전망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구례 배 최초 수출 길 열려!
- 부여 굿뜨래 포도 동남아 간다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고당도 대과종 검정풋고추 신품종 육성
- 무화과 초파리 방제 긴이 유살트랩 개발

정책동향

- 폭염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강화
- 농식품부, 가뭄확산에 적극 대응, 상황실 확대 운영

사업신청 및 홍보

-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호박을 찾습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전반에는 비슷하겠고, 후반에는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3~14mm)보다 조금 많겠음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사과·배 생산, 품질, 출하, 가격전망
- ▶ 감자·양배추 생산, 출하, 가격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4

- ▶ 여수시, 지역 농수특산물 품평, 상담회 개최
- ▶ 순천시, 전국 최고 품질 순천 외서 딸기묘 본격 출하
- ▶ 광양시, 더위에 지친 건강, 홍매실발효액과 참들배로 충전!!
- ▶ 고흥군, 딸기·파프리카 스마트 팜 온실신축 공모사업 선정
- ▶ 화순군, 명품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정 무료서비스 제공
- ▶ 영암군, 영암무화과 본격 출하
- ▶ 영광군, 햅쌀용 조생종 벼 첫 수확
- ▶ 신안군, 강소농 크로스 코칭 권역별로 실시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2

- ▶ 구례 배 최초 수출 길 열려!
- ▶ 부여 굿뜨래 포도 동남아 간다
- ▶ 천안포도 수출단지, 당도, 높은 안전성 내세워 중국 포도시장 진출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6

- ▶ 온난화 대응 남부지역 벼 뒷그루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파종 적기 및 한계기
- ▶ 온난화 대응 남부지역에서 청보리 최대생산을 위한 답리작 재배 기술
- ▶ 고당도 대과종 검정풋고추 신품종 육성
- ▶ 무화과 초파리 방제 간이 유살트랩 개발
- ▶ 아열대과수 패션프루트 본격 출하
- ▶ 폭염에 따른 고추 후기 관리 요령 발표
- ▶ 검정쌀과 붉은쌀의 기능성 모은 흑진미 개발
- ▶ 이른 추석용 사과 아리수 과일시장에서 첫 선
- ▶ 고온에도 품질 좋은 국산 포도 후보석 평가받아

❁ 정책 동향 38

- ▶ 폭염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강화
- ▶ 농식품부, 가뭄확산에 적극 대응, 상황실 확대 운영
- ▶ 전남도, 가뭄 대책 예비비 15억원 긴급 투입

- ▶ 러시아 인삼시장, 프리미엄 마케팅으로 공략
- ▶ 냉동편의식품 좋아하는 중국의 젊은 소비자
- ▶ 한-러, 연해주 진출 한국 농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협의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8. 29.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4.4% 하락 마감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2.2% 하락 마감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미국의 높은 수확 예측량과 차트기반의 매도로 인해 금요일 전일 대비 0.8% 하락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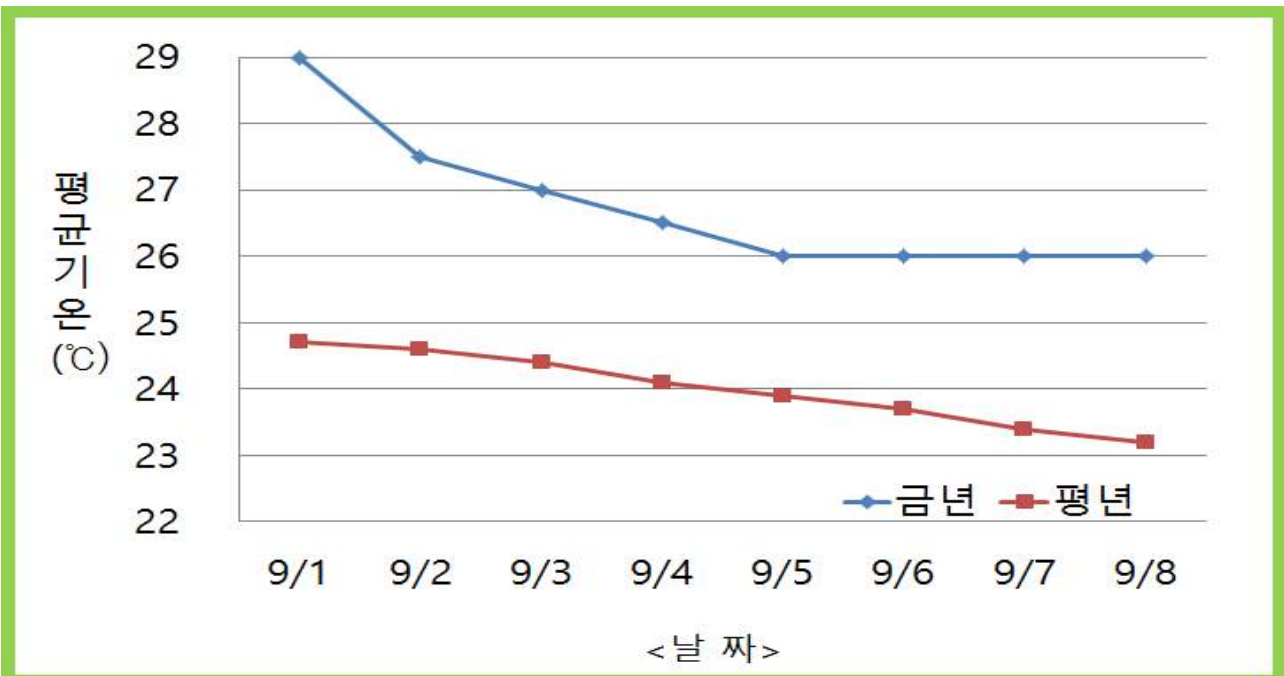
- ▶ 전남도, “2016 A-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 참가
- ▶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호박을 찾습니다
- ▶ 농촌진흥청, 우리 술 품질분석 정보 제공한다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6.8	24.0	2.8	29.0	28.7	2.2	22.4	20.4	2.2	6.4
9. 01.(목)	29.0	24.7	4.3	28.0	29.1	4.9	22.0	21.2	2.8	8.7
9. 02.(금)	27.5	24.6	2.9	28.0	29.2	2.8	23.0	21.0	2.0	8.1
9. 03.(토)	27.0	24.4	2.6	28.0	29.0	2.0	23.0	20.9	2.1	8.2
9. 04.(일)	26.5	24.1	2.4	29.0	28.7	1.3	23.0	20.6	2.4	7.6
9. 05.(월)	26.0	23.9	2.1	31.0	28.7	1.3	23.0	20.2	1.8	5.5
9. 06.(화)	26.0	23.7	2.3	30.0	28.5	1.5	22.0	20.0	2.0	4.9
9. 07.(수)	26.0	23.4	2.6	29.0	28.2	1.8	22.0	19.8	2.2	5.2
9. 08.(목)	26.0	23.2	2.8	29.0	28.0	2.0	21.0	19.6	2.4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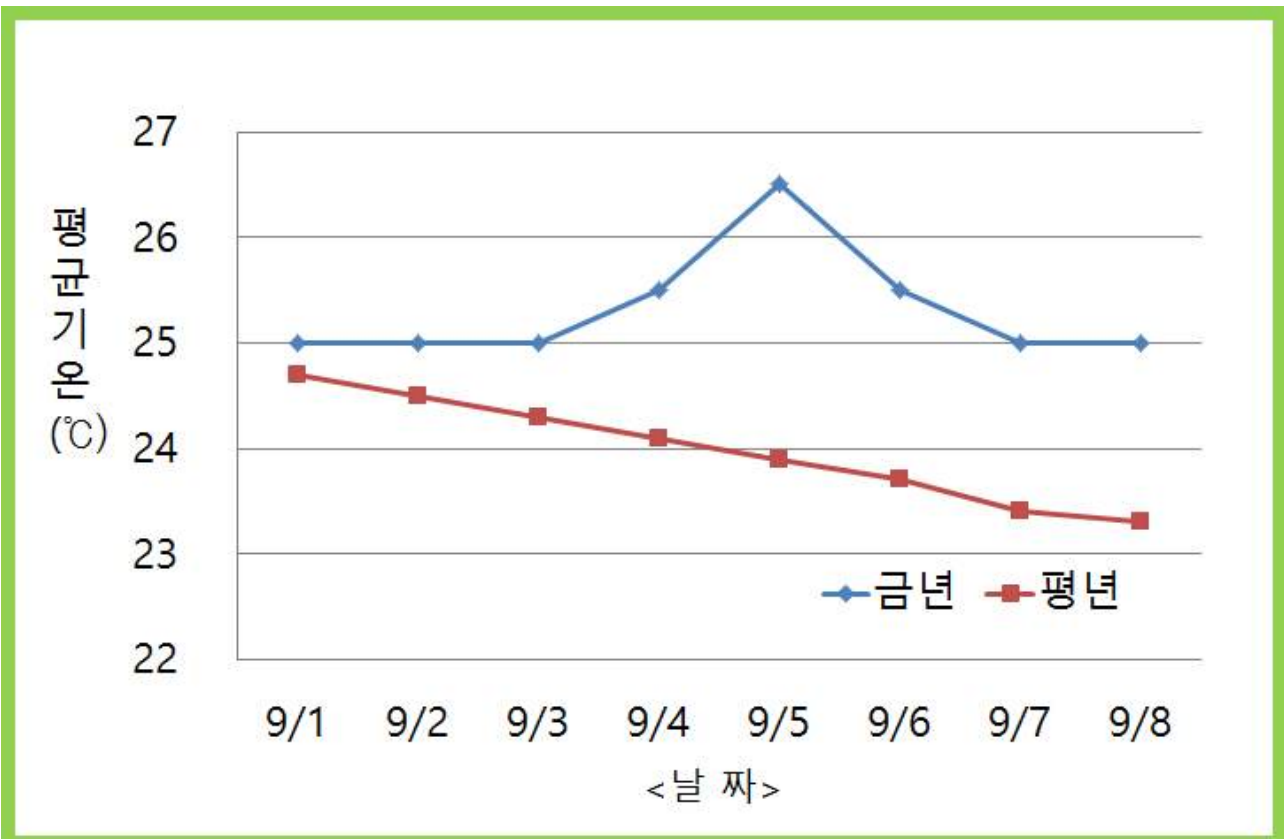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5.3	24.0	1.3	28.0	28.1	-0.1	22.6	21.0	1.6	6.5
9. 01.(목)	25.0	24.7	0.3	27.0	28.6	-1.6	23.0	21.8	1.2	8.9
9. 02.(금)	25.0	24.5	0.5	27.0	28.6	-1.6	23.0	21.6	1.4	8.9
9. 03.(토)	25.0	24.3	0.7	27.0	28.4	-1.4	23.0	21.4	1.6	9.3
9. 04.(일)	25.5	24.1	1.4	28.0	28.1	-0.1	23.0	21.1	1.9	8.3
9. 05.(월)	26.5	23.9	2.6	30.0	28.1	1.9	23.0	20.8	2.2	4.8
9. 06.(화)	25.5	23.7	1.8	29.0	28.0	1.0	22.0	20.6	1.4	4.5
9. 07.(수)	25.0	23.4	1.6	28.0	27.7	0.3	22.0	20.4	1.6	4.6
9. 08.(목)	25.0	23.3	1.7	28.0	27.6	0.4	22.0	20.2	1.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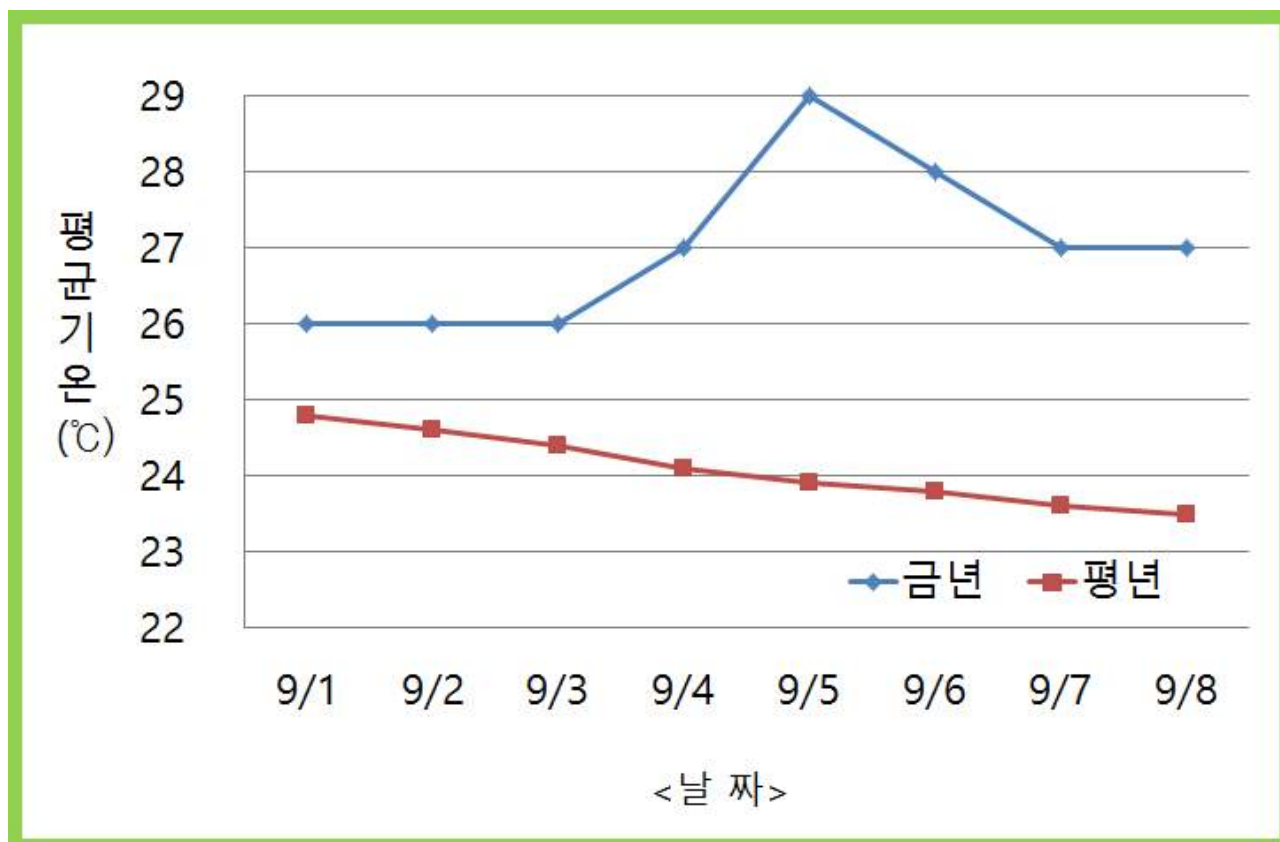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7.0	24.1	2.9	27.0	27.3	-0.3	27.0	21.6	5.4	6.8
9. 01.(목)	26.0	24.8	1.2	26.0	27.9	-1.9	26.0	22.3	3.7	9.2
9. 02.(금)	26.0	24.6	1.4	26.0	27.8	-1.8	26.0	22.1	3.9	8.9
9. 03.(토)	26.0	24.4	1.6	26.0	27.5	-1.5	26.0	21.9	4.1	8.3
9. 04.(일)	27.0	24.1	2.9	27.0	27.2	-0.2	27.0	21.6	5.4	8.2
9. 05.(월)	29.0	23.9	5.1	29.0	27.2	1.8	29.0	21.4	7.6	5.8
9. 06.(화)	28.0	23.8	4.2	28.0	27.0	1.0	28.0	21.3	6.7	4.3
9. 07.(수)	27.0	23.6	3.4	27.0	26.8	0.2	27.0	21.1	5.9	5.1
9. 08.(목)	27.0	23.5	3.5	27.0	26.7	0.3	27.0	21.0	6.0	4.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사과 생산, 품질, 출하, 가격전망

□ 생산전망 : 생산량 지난해보다 3% 감소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착과수 감소로 지난해보다 3% 적겠지만, 평년보다는 많은 56만 8천톤으로 전망된다.
- 조생종인 쓰가루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하겠으며, 추석용 사과인 홍로는 비대가 매우 원활하여 지난해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품질전망 : 8~9월 사과 품질 매우 양호할 듯

- 생육기 기상이 양호하여 8월 쓰가루 품질은 지난해보다 좋겠으며, 추석에 출하될 홍로 크기는 상당히 크고, 당도와 색택도 양호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출하전망 : 8월 출하량 지난해보다 증가, 추석 공급도 원활할 전망

- 2016년산 8월 햇사과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쓰가루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다소 적겠지만, 추석이 일러 홍로 출하가 당겨짐에 따라 전체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 적겠지만 평년보다는 많은 4만 9천톤으로 전망된다. 추석이 9월 중순으로 홍로는 대부분이 출하 가능하지만, 숙기가 다소 늦은 후지조숙계(료카·히로사키)는 지난해 출하량의 60~7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격전망 : 8월 햇사과 가격 지난해보다 낮을 듯

- 8월 쓰가루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2만 5천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9천~2만 1천원으로 전망된다.

배 생산, 품질, 출하, 가격전망

□ 생산전망 : 작황호조로 생산량 지난해보다 8% 증가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28만 3천톤으로 지난해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였지만, 작황호조로 단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지역별로는 경기·강원과 충청지역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지역은 생육이 매우 원활하지만 재배면적 감소폭이 커 지난해 대비 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품질전망 : 햇배 당도 지난해보다 높지만, 모양은 좋지 않을 듯

- 8월 중순부터 출하될 햇배의 크기는 지난해보다 크고,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 모양은 고온으로 인해 체와부들출과(숫배) 발생이 많아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전망 : 8월과 추석시기 배 공급은 원활할 전망

- 저장배 잔여물량은 지난해보다 적으나, 햇배 생산량 증가로 8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7%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는 추석이 일러 2016년산 신고도 8월 말부터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와 추석용 배 조기수확을 위한 착과량 조절 등으로 지난해보다 8% 많은 7만 3천톤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8월 햇배 가격 지난해보다 높을 듯

- 8월 햇배 원황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많겠으나, 저장배 가격강세 영향으로 상품 15kg 상자에 3만 5천~3만 8천원으로 전망된다.

감자 생산, 출하,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고랭지감자 생산량 지난해보다 증가

○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13만 8천~14만 1천톤으로 지난해보다 5~7%, 평년보다 20~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랭지감자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천톤)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6년		3,659~3,729	3,783	138,4~141
2015년		3,403	3,875	131,8
평 년		3,646	3,163	115,3
증감률(%)	전년대비	7.5~9.6	-2.4	5~7
	평년대비	0.4~2.3	19.6	20~22.3

□ 출하전망 : 8월 감자 출하량 지난해보다 증가

○ 8월 감자 출하량은 저장봄감자와 고랭지감자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9월 감자 출하량은 저장봄감자와 고랭지감자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8월 가격 지난해보다 낮으나, 지난달 대비 상승 전망

○ 8월 감자(수미) 상품 20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 (21,680원)보다 낮은 17,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품성이 좋은 햇고랭지감자 출하로 지난달(15,060원)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9월 감자(수미) 상품 20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 (20,130원)과 평년(21,190원)보다 낮으나, 8월과 비슷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배추 생산, 출하,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고랭지양배추 생산량 지난해보다 증가

-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7, 13% 증가한 1,788ha로 조사되었다. 생산량은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22, 13% 증가한 7만 8천여톤으로 추정된다.
- 겨울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호남과 제주지역이 각각 1, 6%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금년 겨울 만생종 양배추 출하기 가격이 높아 재배의향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지난해 대비 증감

(단위 : %)

가을양배추				겨울양배추		
충청	호남	영남	전체	호남	제주	전체
-7.3	-4.9	-6.8	-6.1	1.3	5.7	4.6

□ 출하전망 : 8월 출하량 지난해보다 증가

- 8월 양배추 전체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지난해보다 7% 많을 전망이다.

□ 가격전망 : 8월 가격 지난해보다 낮아

- 8월 양배추 상품 8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해(6,440원)보다 낮은 5,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9월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상품 5,820원)보다 낮을 전망이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8. 29.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8/29)	1주일전 (08/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작물	쌀(일반계)	20kg	36,000	36,000	36,200	39,800	41,427	↓ 9.5	↓ 13.1
	콩(백태)	35kg	152,000	152,000	152,000	137,000	185,800	↑ 10.9	↓ 18.2
	고구마(밤)	10kg	28,000	29,600	29,560	28,300	28,353	↓ 1.1	↓ 1.2
	감자(수미)	20kg	23,400	22,800	19,200	25,350	26,183	↓ 7.7	↓ 10.6
채소류	배추(고랭지)	1kg	2,000	1,780	964	683	988	↑ 192.8	↑ 102.4
	양배추	10kg	8,000	6,600	4,760	6,950	8,597	↑ 15.1	↓ 6.9
	오이(다다기계통)	10kg	44,333	41,000	22,800	21,333	35,156	↑ 107.8	↑ 26.1
	애호박	8kg	26,000	14,200	11,840	14,950	23,907	↑ 73.9	↑ 8.8
	토마토	10kg	23,200	17,800	19,000	19,100	25,380	↑ 21.5	↓ 8.6
	당근	20kg	48,000	47,600	32,560	31,150	37,183	↑ 54.1	↑ 29.1
	건고추(화건)	60kg	560,000	570,000	652,000	805,000	840,867	↓ 30.4	↓ 33.4
	풋고추	10kg	96,000	75,000	49,800	24,350	44,000	↑ 294.3	↑ 118.2
	마늘(깐마늘)	20kg	132,000	132,000	135,000	131,000	105,533	↑ 0.8	↑ 25.1
	양파	20kg	17,200	16,600	15,080	28,100	18,013	↓ 38.8	↓ 4.5
	대파	1kg	2,220	2,100	1,410	1,995	1,645	↑ 11.3	↑ 35.0
	파프리카	5kg	22,400	21,000	14,480	16,800	32,493	↑ 33.3	↓ 31.1
	멜론	8kg	21,400	22,000	19,600	17,700	22,793	↑ 20.9	↓ 6.1
	방울토마토	5kg	17,600	16,600	14,360	14,550	18,850	↑ 21.0	↓ 6.6
	수박	1개	22,200	25,000	15,040	14,450	14,443	↑ 53.6	↑ 53.7
과일류	사과(후지)	10kg	40,200	40,200	38,800	-	59,933	-	↓ 32.9
	배(신고)	15kg	54,800	54,800	54,800	30,200	52,513	↑ 81.5	↑ 4.4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8/29)	1주일전 (08/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50,000	550,000	540,000	530,000	555,733	↑ 3.8	↓ 1.0
	느타리버섯	2kg	15,600	15,000	12,960	14,400	15,477	↑ 8.3	↑ 0.8
	새송이버섯	2kg	7,800	7,600	7,000	7,900	8,707	↓ 1.3	↓ 10.4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141	7,977	7,819	7,281	6,556	↑ 11.8	↑ 24.2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72	2,019	2,011	2,162	2,033	↓ 4.2	↑ 1.9
	닭고기	1kg	5,774	5,304	5,111	5,136	5,754	↑ 12.4	↑ 0.3
	계란(특란)	30개	5,292	5,442	5,115	5,753	5,838	↓ 8.0	↓ 9.4
	우유	1리터	2,551	2,548	2,548	2,547	2,398	↑ 0.2	↑ 6.4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8. 29.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768 천원	5,961 천원	5,543 천원	↓ 3.2	↑ 4.0
	거세	6,646 "	6,918 "	6,904 "	↓ 3.9	↓ 3.7
송아지 (6~7월)	암	2,991 "	2,969 "	2,656 "	↑ 0.7	↑ 12.6
	수	3,912 "	3,931 "	3,240 "	↓ 0.4	↑ 20.7
육우(600Kg)		3,012 "	3,226 "	3,475 "	↓ 6.6	↓ 13.3
젓소수송아지(7일령)		394 "	394 "	264 "	- 0	↑ 49.2
돼지(110kg)		427 "	429 "	446 "	↓ 0.4	↓ 4.2
육계(원/kg)		2,079 원	2,169 원	1,213 원	↓ 4.1	↑ 71.3
계란(원/특란10개)		1,107 "	1,089 "	1,209 "	↑ 1.6	↓ 8.4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0	↓ 28.5

※ 한우(거세우) 생산비 : 7,260천원/마리 (△326) * (5,658 - 2,332 + 3,934 = 7,260천원)
 ('15년 생산비) ('15년 송아지 가격) (현재 수 송아지 가격)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l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지역 농수특산물 품평, 상담회 개최

- 30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우수 농수산물·관광상품 발굴 홍보 -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오는 3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남창조경제 혁신센터와 함께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찾아가는 품평, 상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는 여수지역 21개 우수 농수산물 제조·가공업체가 참여한다. 행사에 출품되는 농산물은 거문도해풍썩과 돌산갓김치, 노루궁뎅이버섯, 갓두부과자 등이며 홍합·조미 건어포류·새고막·멸치 등의 수산물도 선보여 GS홈쇼핑과 GS리테일 관계자 및 MD (상품기획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 이번 품평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상품들은 향후 생산현장 방문 등을 통한 상품화 기획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GS유통망에 출시될 예정이다.
- 상담회를 겸한 이번 품평회에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식품 벤처 창업특화센터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무, 특허 분야에 대한 원스톱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특산품 및 관광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형유통업체로의 판로를 개척해 중소 가공업체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다음날인 31일에는 GS홈쇼핑 MD와 전문 여행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꽃섬’으로 잘 알려진 하화도 일원의 관광 상품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으로 여수지역 섬 관광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 출처 : 여수시

■ 순천시, 전국 최고 품질 순천 외서 딸기묘 본격 출하

- 올해 1,250만주 전량 공급계약 완료... 농가소득 39억원 -

-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외서면 딸기묘가 지난 20일 경남 밀양 딸기 재배 농가에 2만주(설향)를 시작으로 본격 출하에 나섰다.
- 외서지역 딸기묘는 준산간지에 위치한 최적의 기후조건과 순천시의 맞춤형 특품 육성사업을 통한 재배방식 개선으로 타지역에 비해 병해충 발생이 적어 건강한 우량 무병 딸기묘 생산이 가능하다.
-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급계약을 100% 완료하고 전국 딸기 주산지인 담양·곡성·김해·남원·논산·진주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 올해는 총 12ha 재배면적에서 설향·육보 등 1,250만주가 생산될 예정이다.
- 공급가격은 포트묘 한 주당 450원, 베드묘는 한 주당 300원이며 올해 약 39억원의 농가 소득창출이 기대된다.
- 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딸기묘를 고소득 전략작목으로 선정하고 내재해형 하우스 보급, 무인방제 시스템, 배드 재배시설 집중 지원 등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전국 제일의 딸기묘 주산지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순천시

■ 광양시, 더위에 지친 건강, 홍매실발효액과 참돌배로 충전!!

- 홍매실 발효액 · 백운산 참돌배 스파우트파우치 제품 출시 -

- 광양시가 대표 농산물인 홍매실과 참돌배를 이용해 ‘홍매실발효액’과 ‘백운산참돌배’ 스파우트파우치 제품을 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 이 제품을 생산한 부저농원(주)(대표 이평재)는 ‘얼굴 있는 제품’으로 신뢰성 있는 농식품 생산을 목표로 농식품부 6차산업 인증을 받고 무농약으로 재배한 매실·돌배·산야초 등을 이용하여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2016 강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도 선정되어 가볍고, 들고 다니기 편한 스파우트파우치 형태로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
- 새콤달콤한 맛과 향이 뛰어난 ‘홍매실발효액’은 3년 숙성된 홍매실 발효액에 홍매실 식초를 혼합한 제품으로, 기호에 맞게 3~4배의 물에 희석해 섭취하면 무더위에 지친 건강에 활력을 준다. 또한 ‘백운산참돌배’는 기관지에 좋다는 돌배에 도라지발효액과 수세미 발효액을 혼합하여 만든 건강음료로 이번 추석선물로 추천한다.
- 이은희 농식품가공팀장은 “시는 이번에 출시된 제품처럼 광양시 농특산물을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 고흥군, 딸기·파프리카 스마트 팜 온실신축 공모사업 선정

-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공모사업’에 홍양영농조합법인(고흥만 딸기 수출영농조합법인 포함)이 선정되어 72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23일 밝혔다.
- 이 사업은 시설원예작물의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채소·화훼류를 재배, 생산하며 일정규모 이상을 수출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스마트 팜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원격,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는 농장으로 기존 농가보다 생산량 및 상품출현율 증가와 노동비가 절감된다.
-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2개 법인의 유리온실(파프리카) 2ha와 수출 딸기 시설하우스 1ha를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시설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에 선정된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7년 8월까지 준공하고 당해연도 11월부터 수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앞으로 수출 전문스마트 팜 기반시설이 갖춰질 경우 파프리카와 딸기의 수출비중을 높여 2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군 관계자는 “고흥은 온난한 기상여건과 일조량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원예산업의 적지로 각광 받고 있다”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고흥만 간척지내 200ha의 부지를 활용하여 연차적으로 수출원예전문단지를 확대조성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출처 : 고흥군

■ 화순군, 명품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정 무료서비스 제공

- 흙토람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토양검정 결과 확인할 수 있어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명품농산물 생산을 위해 토양검정 시비처방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토양검정은 경작지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함으로써 작물재배 전 알맞은 비료를 추천해 주어 농경지 토양의 불균형 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토양오염을 최소화하고 작물에 적당한 양분을 공급하여 지속적 농업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준다.
- 토양검정 의뢰방법은 작물재배 전 해당 논 또는 밭의 여러 지점에서 표면 2cm를 걷어낸 후 흙을 채취하여 그 중 500g 정도를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 한편 토양검정 결과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379-5416), 컴퓨터를 통해 '흙토람'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하다. '흙토람'은 농업인들에게 시비처방 조회뿐만 아니라 토양의 특성, 작물영양진단, 작물처방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조영순 소장은 “토양검정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이며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니 토양검정서비스와 흙토람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 영암군, 영암무화과 본격 출하

- 무화과의 최대 재배지인 영암군에서 무화과 출하를 맞아 생산 농가들이 무화과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영암군은 전국 무화과 재배면적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 인증으로 영암군이 무화과의 원산지임이 공식적으로 인증되었다.
- 특히, 영암무화과는 피부미용, 변비, 고혈압, 부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섬유질이 풍부해 다이어트, 장운동 개선 등 건강증진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일사량이 풍부하여 높은 당도를 자랑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 군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무화과 출하가 시작되면서 전국에서 택배주문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무화과는 가족들이 함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로 많은 애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오는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일원에서 영암 무화과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 출처 : 영암군



■ 영광군, 햅쌀용 조생종 벼 첫 수확

- 올 추석은 영광햅쌀로 기쁨가득 -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3일 염산면 오동리 은희삼 농가 조기 재배단지에서 관내 농업인들과 농업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생종 벼 단지 평가회 및 수확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김준성 군수가 직접 콤바인 운전 수확시연에 동참하여 첫 수확의 기쁨을 농업인과 같이 나누었다.
- 첫 수확한 단지는 조생종인 호반벼로써 4월 25일 2ha 모내기를 실시하여 115일 동안 폭염 속에서도 농업인의 땀과 정성으로 재배하여 첫 수확 하였으며, 수확한 벼는 영광군통합미곡종합처리장이나 모싯잎송편 가공업체에 출하하여 소비자의 입맛을 돋우는 햅쌀과 모싯잎송편용, 추석 제수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 올해 추석이 전년에 비해 12일 빨라 조생종 벼 가격이 전년대비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어 조생종 벼 재배를 통해 조금 이나마 소득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내년에도 확대재배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는 첫 수확의 기쁨을 맞이하였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조생종 벼 조기재배는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등 기상재해 예방과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력 분산 효과 등이 있어 대농가위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추석의 빠름과 늦음에 따라 가격차가 크므로 조생종 벼 재배 시 당해 연도 추석 일정을 감안해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영광군

■ 신안군, 강소농 크로스 코칭 권역별로 실시

- 크로스 코칭을 통한 작지만 강한 농업인의 길 열어 -

- 신안군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의 역량강화를 위한 강소농 경영개선교육을 강소농 대상농가에서 크로스 코칭 방법으로 권역별로 실시하였다.
- 크로스 코칭은 강소농 농가가 운영하는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토론하고 비교 분석하여 더 나은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도출하는 방식의 현장교육이다.
- 지난 7월 북부권 지도, 증도, 임자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소농 크로스 코칭은 8월 비금면과 압해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론교육을 현장에 접목시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강소농의 길을 열었다.
- 북부권에서 실시한 크로스 코칭은 무화과 농장과 펜션운영 농가에서 진행하였으며, 된장가공 농가에서는 간편고추장 만들기 실습을 병행하여 코칭농가를 진단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었다.
- 특히, 지난 8월 10일 비금면에서 실시한 강소농 크로스 코칭은 농어촌관광 현장포럼으로 진행하였으며 비금면 농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압해 용마을 농촌체험센터에서 실시한 크로스 코칭은 농촌 현장애로사항을 질의 응답식 토론으로 진행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및 농촌관광체험에 대한 코칭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농·어업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신안군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뜻을 모았다.

* 출처 : 신안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구례 배 최초 수출 길 열려!

- 구례군은 지난 19일 구례농협 산지유통센터 (APC)에서 2016년산 배를 공동 선별하여 대만에 초도 물량 12톤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수출한 배는 8월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 품종인 '원황'으로, 구례농협은 지난 5월에 수출 선과장 승인을 받고, 8월에 대만 바이어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수출 길을 열었다.
- 또한, 구례농협에서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중만생종인 '신고' 배 19톤을 대만에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증가로 청정지역 구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수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구례농협에서는 작년 단감 20톤을 말레이시아에 처음 수출한 이후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단감 50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품질 및 당도가 우수해 해외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구례군



■ 부여 굿뜨래 포도 동남아 간다

- 19일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첫 수출 선적식... 6.5톤 공급 -

- 해외에서 고품질로 각광받고 있는 부여 굿뜨래 포도의 올해 동남아 수출이 개시됐다.
- 부여규암농협은 지난 19일 규암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해 공동 선별된 굿뜨래 비가림 포도의 선적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 올해 동남아시아시장에 첫 수출되는 굿뜨래 포도 물량은 비가림 재배로 생산한 약 6.5톤 규모로, 2,000만원 상당이다.
- 앞으로 규암농협과 부여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수출 확대가 국내 수급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해외시장 개척사업 및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방침이다.
- 규암농협 관계자는 “2014년 말레이시아 시장에 5만달러 규모의 부여 굿뜨래 포도를 첫 수출한 이후, 높은 당도와 안전성 덕분에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 지역 신규 바이어들을 발굴해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천안포도 수출단지, 당도 높은 안전성 내세워 중국 포도시장 진출

- 지난해 첫 중국 수출·· 올해 중국·베트남 등 해외시장에 거봉포도 본격 홍보 -

- 거봉포도는 알맹이가 커서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특히 무더위에 지친 여름, 거봉포도는 피로와 무더위를 날려줄 만큼 달콤하다. 이중 천안의 하늘그린 거봉포도는 큰 포도알과 높은 당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광활한 구릉지대에서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재배돼 안전한 것은 물론 당도도 18°Brix 이상일 만큼 달콤하기 때문이다. 천안의 거봉포도 재배면적은 전국 2,476ha의 32%인 797ha에 달할 만큼 점유율이 높다. 천안 내에서도 포도 재배면적 869ha 중 91.7%를 차지할 만큼 천안의 거봉포도는 유명하다.
- 천안의 하늘그린 거봉포도는 국내시장은 물론 지난해 첫 수출의 쾌거를 이룬 중국 및 동남아시아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15톤의 하늘그린 거봉포도가 중국 광저우로 날아간 것을 비롯해 중국·홍콩·베트남·대만 등으로 총 27.5톤이 수출됐다.
- 천안시청의 오세광 주무관은 “중국인들이 거봉포도의 단맛에 높은 호응을 보여줬다”며 “올해도 중국 바이어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등 우리 포도를 다루길 희망하는 바이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 거봉포도가 중국 수출길에 처음 오른 이후 천안포도 수출단지 소속 농가들은 지난해 10월 중국 광저우로 날아갔다. 직접 거봉포도 판촉행사에 나선 것은 물론 중국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거봉포도가 신선한 상태로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 첫 선을 보인 후 천안의 하늘그린 거봉포도는 중국과 베트남 등 바이어들이 서로 원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수출단가도 서울의 가락시장의 평균경매시세의 두 배를 받을 만큼 현지에서 인정받고 있다.
- 박용화 대표는 “중국의 상해와 광저우 지역의 바이어는 물론 베트남 바이어까지 서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거봉포도를 원하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해준 결과”라고 해석했다.
- 재배농가들과 천안시는 올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거봉포도를 생산해 수출 200톤(1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포도수출유통센터 건립에 나선다. 포도수출유통센터는 대지 2,100㎡, 700톤의 포도를 취급할 수 있는 포도 전용 선과장이다. 포도수출유통센터는 물론 거봉포도 재배농가들도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을 받는 등 안전한 포도 생산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 포도수출에 대한 농가들의 높은 관심도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신호다. 지난해에는 포도수출단지 지정받은 농가가 13곳(14ha)이었지만 올해는 100농가(100ha)가 신청할 만큼 농가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 오세광 주무관은 “GAP 인증을 받은 포도수출유통센터가 완성되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거봉포도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올해도 빠르면 8월 말 수확을 시작해 9월 초부터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9년까지 600톤의 포도가 수출될 수 있도록 농가 교육,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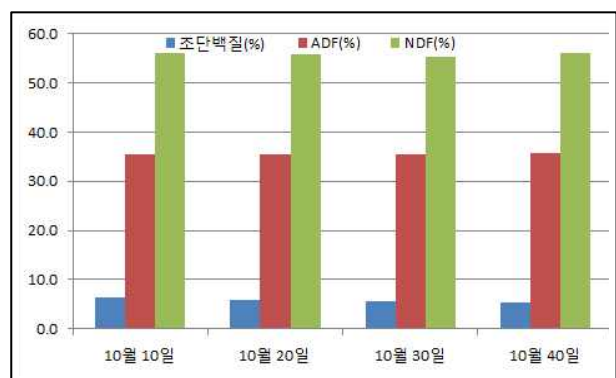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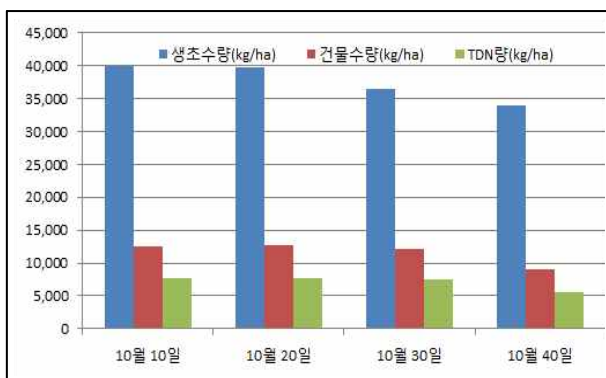
온난화 대응 남부지역 벼 뒷그루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파종 적기 및 한계기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남부지역에서 최대생산을 위한 벼 뒷그루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파종 시기는 10월 10~20일, 파종량은 ha당 30~40kg이 적합함
- 파종 한계기는 11월 10일경 이전으로 적기 파종을 실시하여야 함
- 재배방법

구 분	내 용	재배상 유의점
파종적기	10월 10~20일 (한계기 : 11월 10일)	지나친 조파는 어린 묘의 옷자라고, 만파는 뿌리내림이 약해 월동에 불리함
파종량 (kg/ha)	30~40	적기 파종에서 파종량 증가에 따른 효과 없음
파종방법	경운 → 파종(산파 또는 20cm 줄뿌림) → 진압 또는 흙덮기	종자가 깊이 묻이면 발아가 불량함으로 얇게 복토함
시비량 (kg/ha)	질소(N)-인산(P ₂ O ₅)-칼리(K ₂ O)=140-150-150	ha당 퇴비 10톤과 토양의 pH가 6.0 이하인 경우 석회 2톤 살포
분시방법	질소:기비30, 이른봄 70%, 인산, 칼리:전량 기비	

○ ha당 30~40kg 파종량에서 파종일에 따른 수량성(좌) 및 사료가치(우) (2015)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적기 및 적량 파종으로 최대수량 생산 및 종자비 절감
 - 10월 10~20일에 ha당 30~40kg 파종에서 생초량 39.5톤(TDN 7.5톤)으로 11월 10일 파종의 33.9톤(TDN 5.5톤)에 비해 16.5% 증가
 - ha당 30kg 파종시 60kg 파종에 비해 종자비 50% 절감
- 경제성 분석(원/ha) : 조수입 1,105,000원 증가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 증가되는 비용 - 계(A) : 0원	○ 증가되는 이익 - 증산 TDN : 1,000,000원 - 종자비 절감 : 105,000원 - 계(B) : 1,105,000원
○ 추정 수익액(B-A) = 1,105,000원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를 최대생산하기 위해 적기파종(10월 10~20일)을 실시
- 파종량은 적기 파종시 ha당 30~40kg이 적당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김기수, 박만호

■ 온난화 대응 남부지역에서 청보리 최대생산을 위한 답리작 재배기술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남부지역에서 최대생산을 위한 청보리 파종시기는 10월 25일경이며, 파종량은 ha당 220kg이 적합함

○ 재배방법

구 분	내 용	재배상 유의점
파종적기	10월 25일경(한계기 : 11월 5일)	- 파종적기 보다 빠르거나 늦으면 수량 감소 ※ 파종이 늦어지면 수량감소 큼
파종량 (kg/ha)	220	- 적량 파종 시 최대수량 생산
파종방법	로타리 경운 → 휴립광산파 (씨앗뿌리기 → 흙 덮기)	- 습해에 약하므로 배수로 설치
시비량 (kg/ha)	질소(N)-인산(P ₂ O ₅)-칼리(K ₂ O) = 120-100-100	- ha당 퇴비 15~20톤 살포
분시방법	- 질소 : 기비 50%, 이른봄 50% - 인산, 칼리, 퇴비 : 전량 기비	
수확기	호숙기 ~ 황숙기	- 벼 이앙시기를 감안 수확시기 결정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청보리를 10월 25일경 ha당 파종량 220kg 파종에서 생초수량 26.1톤/ha으로 최대생산
- 경제성 분석(원/ha) : 조수입 440,000원 증가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비용 - 종자비용 : 60,000원 - 계(A) : 6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이익 - 증산 TDN : 500,000원 - 계(B) : 500,000원
○ 추정 수익액(B-A) = 440,000원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답리작으로 사료작물로 청보리 재배 시 10월 25일에 ha당 220kg을 파종
-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박만호, 김기수

■ 고당도 대과종 검정풋고추 신품종 육성

- 단맛이 강하고 속살이 두꺼운 고정종 검정풋고추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고품질의 검정풋고추 신품종 ‘자남초 2’를 지난해에 육성하여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다고 발표했다.
- 지난해에 육성한 검정풋고추 신품종 ‘자남초 2’는 검정풋고추 중간모본에 파프리카의 혈통을 교배한 풋고추로써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소비자들이 일반 풋고추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검정색 과피색을 가지고 있으며 파프리카처럼 단맛이 강하다. 또한 매운 맛이 없고 수분함량이 91%로 매우 높아 아삭한 맛과 청량감이 우수하여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다.
- 풋고추 ‘자남초 2’는 하우스재배에서 햇빛 부족으로 인해 안토시아닌 착색이 불완전하고 풋고추 길이가 10cm로 짧게 나오는 단점이 있는데, 전남농기원에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에 햇빛 부족에서도 검정색 안토시아닌 착색이 잘되며, ‘자남초 2’보다 풋고추 길이가 2배가량 긴 20cm의 검정풋고추 계통을 육성하고 있다.
- 전남농기원 원예연구소 이야성 박사는 앞으로 “세대단축을 통해 고정화 과정을 단축시키면 빠른 기간 내에 수확노력이 절감되고 종자 값을 절약할 수 있는 생산비 절감형 고품질 대과종 검정풋고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무화과 초파리 방제 간이 유살트랩 개발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요즘 무화과에 큰 피해를 주는 초파리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간이 유살트랩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초파리는 알에서부터 어른벌레에 이르기까지 25℃에서 약 10여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밀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시설재배에서는 무화과가 익기 시작하는 7월 중·하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밀도가 점점 증가하고, 10월 상순에 최대에 이른다.
- 무화과는 구멍이 있는 과정부에서 부터 시작하여 열매자루 방향으로 익어간다. 날씨가 좋아 과일이 익는 속도가 빠르면 피해를 덜 받지만, 비가 지속되는 등 일조가 부족하여 익는 속도가 늦어지면 초파리의 증식에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때는 피해 과일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제거해야 과수원 내부에서 밀도 증가를 막을 수 있다.
- 간이 유살트랩은 일회용 물병을 이용해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 물병을 불에 달군 송곳으로 작은 구멍을 낸다. 물병 바닥으로 부터 5cm 높이를 일부를 남기고 수평으로 잘라 미끼를 매달고, 비눗물이나 주방세제 등을 채우면 된다. 물을 채운 뒤 자른 부위를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두고, 과수원 주변에 달아둔다.
- 초파리를 유인할 수 있는 미끼로는 잘 익은 무화과가 가장 좋고, 참다래·토마토 역시 유인력이 높지만, 막걸리, 식초 등은 과일보다 못하다. 오래된 과일은 부패하고 유인력이 떨어지며, 자체에서 번식하므로 땅에 묻어 폐기하고 새로운 미끼로 교체해 준다.

- 친환경농업연구소 마경철 박사는 트랩 안으로 유인된 초파리를 물에 빠져 죽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눗물 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고, 과수원내에 떨어진 과일이나 병든 과일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간이 유살트랩은 무화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수원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아파트 단지 등 도심의 음식물 쓰레기장 주변에 설치해도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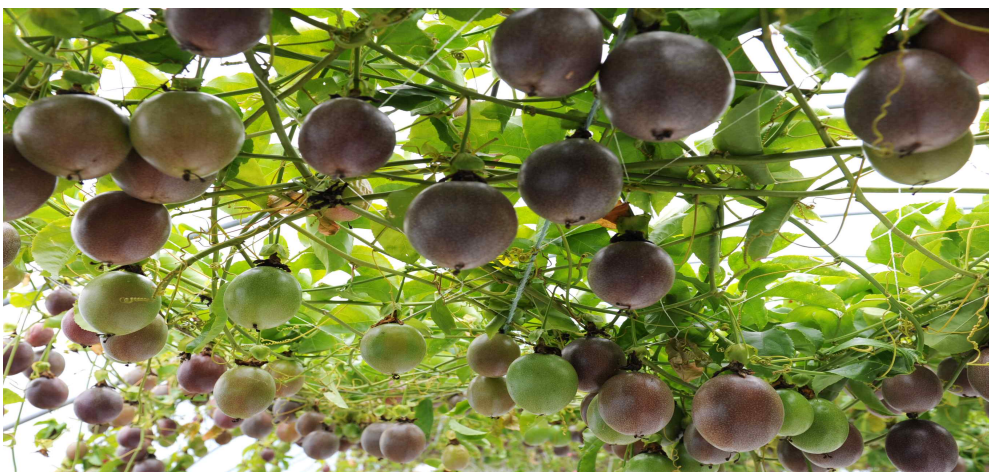
■ 아열대과수 패션프루트 본격 출하

- 백가지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어 -

- 아열대과수인 패션프루트가 전남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수확되어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 패션프루트는 새콤달콤 등 백가지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 백향과로 불리며, 과즙 100g당 10.4g의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 또한, 칼륨이 풍부하여 신장 기능 향상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β 카로틴, 구연산이 풍부하여 피부미용, 노화방지, 생활 습관병 예방, 피로회복에도 효능이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기후변화 대응 패션프루트가 농가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영농 단계별로 재배기술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했다.
- 또한, 생산자간 정보교환과 재배기술을 상향 평준화 하기 위해 전라남도 패션프루트 농업인연구회를 조직했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 전남지역 패션프루트 재배면적은 59농가 11.05ha이며 그중 96%인 10.62ha가 시설재배이고, 나머지 0.13ha는 노지재배이다. 현재는 재배규모가 적기 때문에 현장판매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직거래를 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차성충 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패션프루트가 전남에서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능성 아열대 과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폭염에 따른 고추 후기 관리 요령 발표

- 9월 상순까지 개화 촉진 되도록 관수 등 포장관리 당부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강수량이 적어 고추 생육 불량에 예상되고 특히 개화 불량과 해충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정생산을 위한 고추 후기 관리 요령을 긴급 발표했다.
-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노지 고추 생육 적온은 25~28℃ 인데 최근 한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30℃의 고온에 고추 개화가 지연되고 수정불량에 따른 결실 이상 등으로 후기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 가뭄 대책으로는 먼저 폭염으로 건조해진 고추밭에는 가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수시설 또는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 물을 주며, 건조한 토양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주면 질소와 칼리 흡수가 급격히 늘어나 석회흡수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물을 조금씩 자주 주도록 하고,
- 또 남부지방은 9월 상순까지 핀 꽃은 붉은 고추를 수확할 수 있으니, 생육 후기 거름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8월 하순에 요소와 염화칼리를 10a당 각각 10kg씩 웃거름으로 시용하고, 고온으로 생육이 저조한 포장은 요소 0.2%(물 20ℓ 당 요소 40g)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를 4~5일 간격으로 2~3회 잎에 살포해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차성충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익은 고추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때 수확 하도록 하고 과실에 피해를 주는 담배나방 등 막바지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농가에 당부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검정쌀과 붉은쌀의 기능성 모은 흑진미 개발

- 노화 늦추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 쌀의 부가가치 높여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검정쌀과 붉은쌀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흑진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항산화(antioxidation) 성분은 인체 내의 대사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억제해 노화관련 물질 생성을 줄여 세포 노화 등을 늦춘다.
- 이번에 개발한 '흑진미'는 검정쌀의 대표 기능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붉은쌀의 대표 기능성분인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흑진미'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100g당 60.2mg으로 대비 품종인 '보석흑찰'과 비슷한 수준이다.
- 폴리페놀 함량은 100g당 13.3mg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00g당 3.18mg으로 '보석흑찰', '홍진주'보다 많게는 2배가량 들어있다.
- 또한 '흑진미'의 항산화 활성 검정결과, 대비품종보다 최대 1/7 낮은 농도에서도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이는 수치가 낮을수록 항산화 활성이 좋은 것을 나타낸다. '흑진미'의 수량은 10a당 470kg이고, 적응지역은 남부 및 중부 평야지 1모작지이다.
- 종자는 증식 과정을 거쳐 2018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조준현 박사는 "기능성분이 복합적으로 함유된 '흑진미'를 이용해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개발한다면 우리 쌀의 부가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이른 추석용 사과 아리수 과일시장에서 첫 선

- 농촌진흥청, 25일 경북 문경에서 더위에도 색과 맛 우수한 '아리수' 현장평가회 -

- 고온 기후에도 붉게 색이 잘 들고 맛이 좋은 이른 추석용 사과 '아리수'가 첫 시중 유통을 앞두고 평가를 받았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25일 문경농업기술센터(경북 문경시)에서 사과 '아리수'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는 사과 재배 농가와 종묘업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아리수' 품종에 대한 나무 자람세와 과일 특성, 착색과 수량성 등을 평가하고 재배 시장·단점과 판매 전략을 논의했다.
- '아리수'는 9월 상순에 익는 품종으로 기온이 높은 남부지역에서도 색깔이 잘 들어 이른 추석용 사과로 개발했다. 1994년 '양광' 품종에 '천추' 품종을 교배하고 2010년 최종 선발해 2013년 품종 등록했다. 현재 약 70개 업체에 통상 실시했고, 2014년부터 농가에 묘목을 보급했다. 현재 100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첫 유통을 앞두고 있다.
- '아리수'는 다른 이른 추석용 사과보다 탄저병과 갈색무늬병에 강하고 낙과가 없으며, 당산비(당도 15.9°Brix, 적정산도 0.43%)가 적당하다. 식감이 좋고 맛이 우수하며 저장성도 좋다. 과일 무게는 285g 정도의 중과이고 껍질에 줄무늬가 없이 골고루 붉은색으로 착색된다.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 올해처럼 불볕더위가 지속되는 기온에도 탐스러운 색과 우수한 맛을 지닌 '아리수' 품종이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보급이 확대돼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추석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고온에도 품질 좋은 국산 포도 흑보석 평가받아

- 농촌진흥청, 26일 경북 김천에서 '흑보석' 현장평가회 개최 -

- 밤의 높은 기온에서도 흑색으로 착색이 잘되는 알 굵은 국산 포도 품종 '흑보석'이 출하를 앞두고 평가받았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8월 26일 경북 김천 포도 재배농가에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비가림 재배 시 8월 하순부터 수확이 가능한 포도 '흑보석'의 현장평가회를 실시했다.
- 평가회에는 포도 재배 농업인과 종묘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흑보석' 품종의 개발내력, 과실특성, 재배 시 유의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과실품질과 나무 생육 평가를 진행한다.
- 포도 '흑보석'은 9월 상순(경기 수원 노지 기준)에 수확하는 알 굵은 포도 중 비교적 익는 시기가 빠른 조생종이다.
- 평균 포도 알 무게는 11.5g, 당도는 18.3°Brix로 신맛이 약간 있으면서 착색이 우수해 외관이 매우 수려하다.
- '홍이두'에 '거봉'을 교배해 육성한 품종으로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2003년에 최종 선발했다.
-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해 현재 약 150ha 정도 재배하고 있다.
- '흑보석'은 가온하우스에서 7월 초순부터, 비가림 재배에는 8월 하순, 노지에서는 9월 상순부터 출하가 가능한 품종이다. 결실력 등 재배안정성이 뛰어나 재배면적도 꾸준히 늘고 있다.

- 우리 품종 포도 ‘흑보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알 꺾은 포도 ‘거봉’ 품종의 재배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했다.
- ‘거봉’ 품종은 품질이 우수하고 국내 재배 역사가 50년 이상 돼 소비자에게 매우 친숙한 품종이다. 하지만 여름철 밤 온도가 높을 경우 착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재배에 어려움이 따른다.
- ‘흑보석’ 품종은 고온에서도 흑색으로 색이 잘 들고, 포도 알이 잘 달리는 특성이 있다. ‘거봉’ 품종과 비교했을 때 당도는 비슷하지만, 산 함량이 약간 높아 대립계 품종으로써는 당도와 산도가 조화를 이룬 감산 조화형에 속한다.
- 또한 대립계 포도 품종 중 비교적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 김천지역에서 ‘흑보석’ 품종은 시범작목반(9ha)이 전용상자를 이용해 출하하고 있다.
- 현장평가회가 열리는 경북 김천시 이태호 농가는 “착색이 우수하고 착립이 잘되며 완숙 시 단맛과 신맛이 잘 어우러져 기존의 알 꺾은 포도의 단조로운 단맛과 달라 재배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포도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폭염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강화

- 출하조절,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반 가동 등 총력 추진 -

□ 최근 농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 (최근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7월 하순 이후 지속된 폭염영향을 받아 최근 일부 품목에서 가격상승이 있으나, 농산물 가격(도매, 상품기준)은 대체로 안정돼 있다고 밝혔다.
- (수급전망) 금주 후반까지는 더위에 민감한 작물을 중심으로 가격강세가, 8월 마지막 주간부터는 기상여건 호전과 더불어 추석대책에 따른 집중공급 등으로 대부분 품목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안정 대책 추진

- (현장대응 강화) 농촌진흥청, 농업관측센터 등 농산물 수급 및 기술지도 관련 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른 농작물 생육상황 모니터링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 (KREI) 산지기동반 특별운영(현지 상주), 산지 기상(폭염, 호우) 발생에 따라 관측속보 발행 등을 추진하고,
 - (농촌진흥청) 고랭지배추 생육 전수조사(~8.1.), 폭염기 농작물관리 리플릿 배포, 기상특보, 농축산물 관리방법 등 SMS 발송, 현장기술지원단 운영(~9.30., 3개반) 등을 통해 생육관리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출하조절 추진) 배추·무 등 국민 식탁물가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여건에 따른 시의성 있는 수급조절을 위해
 - (aT) 수급상황에 따라 배추·무 상시비축 물량(배추 2,600, 무 1,000톤/월) 탄력적 공급하고,
 - (농협) 생산안정 및 계약재배 물량 등을 중심으로 출하조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산물 수급안정대책반 가동 등) 더위 지속과 더불어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성수품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조기 대책반 운영(반장 차관)을 통해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기상여건에 의존적인 농산물 수급특성을 감안해 대체소비 (배추대신 양배추 소비확대) 등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한편,
 -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농산물 유통정보' 확인 등을 통해 저렴한 농산물 구매 등 현명한 소비를 당부 하였다.

- * 알뜰장보기(www.kamis.or.kr) : 대형마트 할인행사 정보와 주요 마트, 시장 가격비교
- * 싱싱장터(www.esingsing.com) : 전국 오프라인 직거래장터 운영정보 및 주요 농산물, 가공식품 등 전국 농수특산품을 비교
- * 참가격(www.price.go.kr) : 품목별, 업체별 가격비교, 할인행사 정보 등 제공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가뭄확산에 적극 대응, 상황실 확대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기상전망으로 보아 가뭄양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 가뭄 총력대응 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 기상청은 9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가뭄 양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8월 24일부터 가뭄 해소 시 까지 실시간 가뭄상황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362mm로 평년 542mm의 67% 수준이고, 특히 최근 1개월 강수량은 평균 60mm로 평년 250mm의 24%에 불과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저수율(8. 24.)도 50%로 평년저수율(79%)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강수량저수율 부족으로 가뭄이 심한 지자체에서는 자체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관정 가동, 하천 굴착, 양수 급수, 급수차 공급 등 대책급수를 추진하고 있다.
- 8월 24일 현재, 논인 경우는 전남 신안군 등 20개 시·군 3,769ha에서 논물이 마르고, 밭 지역은 충남·전남·경북·제주 등 40개 시·군에서 콩·고추·깨·고구마·시금치·당근 등 약 7,361ha에서 시들음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은 식량정책관을 반장으로 하여 급수대책팀, 재해대응팀, 기술지원팀으로 구성하여 가뭄 상황, 급수대책 추진 상황 점검과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 급수대책비 등을 지원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범부처적으로 가뭄 극복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도, 가뭄 대책 예비비 15억원 긴급 투입

- 이 지사 특별 지사... 간이양수장 설치, 유류대 지원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 -

- 전라남도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밭작물이 타들어 가고 물이 마른 논이 늘어남에 따라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5억원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 이는 전라남도가 지난 8일 중앙정부에 가뭄 대책비 80억원 지원을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가뭄 피해 지역은 점점 확대됨에 따라 이낙연 도지사가 예비비 투입을 특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 이번 예비비는 해남·장흥·영광·신안 등 가뭄 우심 시·군 위주로 간이양수장 설치, 하상 굴착, 유류대 지원 등에 사용토록 배정할 계획이다.
-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가뭄대책 사업비가 지원될 경우 즉시 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전라남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전남지역 저수율이 48%를 기록, 평년(67%)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오는 9월 초까지 비 예보가 없어 일부 지역별로 물 부족 현상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 가뭄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당분간 비가 없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며 “매일 시·군별 가뭄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용수 공급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가뭄 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8. 해외 농업정보

◆ 러시아 인삼시장, 프리미엄 마케팅으로 공략

- 백화점 비롯한 고급 판로 구축 프리미엄 전략 필요 -

- 러시아에서 우리 인삼의 소비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급스러운 포장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함께 우리 제품의 특징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러시아의 건강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년층 인구증가로 건강식품 수요가 높아지면서, 특히 인삼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일례로 인삼차 등 인삼가공품을 구입하는 현지 소비자들이 많은 편이며, 집에서 직접 인삼뿌리를 달이거나 인삼주를 담은 소비자들도 있다. 더욱이 인삼주를 원기회복에 효과적인 약으로 처방하는 병원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러시아에서 인삼이 건강식품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직 인삼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산 인삼 제품의 러시아 수출은 다소 미흡한 편이다. 이는 한국산 인삼 자체를 모르는 현지인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 인삼에 대한 우수성과 효능을 알릴 수 있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러시아 건강식품시장에 유통되는 인삼 및 인삼가공품은 대부분이 저가·저품질의 중국산이 많은 편이다. 이에 한국이 인삼 종주국이라는 점과 높은 품질 및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한다면, 식품안전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지 노년층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으면서, 프리미엄 상품으로도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냉동편의식품 좋아하는 중국의 젊은 소비자

- 맛·품질 앞세운 한식편의식품 유망 -

-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냉동식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류에 관심 있는 젊은 층을 겨냥해 맛과 품질이 뛰어난 한식냉동식품을 집중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지 냉동식품 시장규모는 2004년 45억 7,000만위안(한화 약 7,674억원)에서 2013년 649억 8,000만위안(약 10조 9,127억원)으로 10년 사이에 급격히 성장했으며, 2014년에는 680억위안(약 11조 4,199억원)을 기록해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 이처럼 중국의 냉동식품 수요가 빠르게 늘게 된 이유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상하이·베이징·광저우를 비롯한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싱글족 및 젊은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바쁜 사회생활로 직접 요리하기보다는 이미 조리되어 데워먹기만 하면 되는 간편 조리식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높다.
-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 냉동식품의 대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지 싱글족 및 젊은층을 겨냥한 고급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식품 구매에 있어서 품질을 중시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다.
- 또한 현지 젊은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디자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젊은 소비자들이 한류에 익숙하다는 점을 착안해, 김치볶음밥·떡볶이를 비롯한 '한국식 맛'을 살리는 한식냉동제품을 꾸준히 홍보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러, 연해주 진출 한국 농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8월 24일 제3차 한-러 농업협력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과 러시아는 농업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모색과 농업개발 관련 애로해소를 위한 정부 간 채널 확보차원에서 '12년 5월 러시아 카잔에서 한-러 농업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농업 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 이번 제3차 한-러 농업협력위원회에서는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 추진, 종자개발 등 농업과학기술 협력, 농·식물 품종보호제도 협력, 수의 및 위생분야 협력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국 감독위원 및 연구그룹 합동회의 개최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연해주 진출 한국 농기업의 곡물 생산성 증대와 우리 우수 종자의 러시아 진출 확대를 위해 양국 전문기관 간의 업무협력 방안이 다루어진다.
- 그리고 베링해 등 철새의 주요 번식지를 갖고 있는 러시아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제안, 동물질병에 대응하는 국제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연해주 현지 적합 종자개발을 포함한 농업과학기술 개발 협력을 통해 우리 영농기업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등록된 자국품종의 재배 심사결과를 양국이 상호 인정하는 등 품종 보호등록 협력이 이루어지면 러시아 진출 한국 종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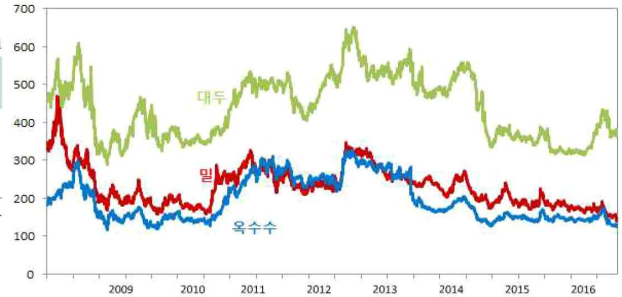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8. 29.(시카고 선물거래소)

풍부한 국제 공급으로 인한 밀 선물 가격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08.26)	전일대비	전월평균 ('16.7)	2015 평균
밀	140.87	▼4.4%	154	186
옥수수	124.48	▼2.2%	135	148
대두	363.98	▼0.8%	390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9월물 대두: 8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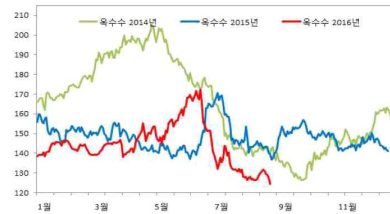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4.4% 하락 마감하였음. 풍부한 국제 공급과 수출 사업의 치열한 경쟁은 anchor price를 이어가고 있음. 무역가들은 이집트 국가 곡물 구매자의 국제 밀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적색 연질밀 가격은 부셸 당 0.5센트 하락한 \$4.00에 마감하였으며, 켄자스 시티 상품 거래소의 적색 경질밀 가격은 부셸 당 0.25센트 하락한 \$4.05에 마감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2.2% 하락 마감하였음. Pro Farmer Midwest Crop Tour에서 스카우트는 아이오와 옥수수 단수를 에이커 당 188.17 부셸로 예상하였음. Pro Farmer는 CBOT가 마감한 이후 금요일 옥수수와 대두 생산 추정치를 발표할 계획이었음. 농림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수확을 시작하였고 3,000 ha에서 8,000톤을 탈곡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 당 0.75센트 하락한 \$3.32에 마감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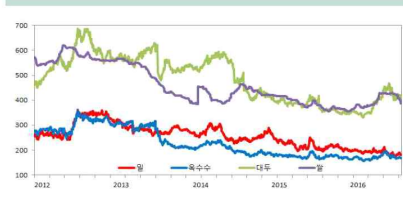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미국의 높은 수확 예측량과 차트기반의 매도로 인해 금요일 전일 대비 0.8% 하락 마감하였음. 농부들은 미국산 대두의 수확을 약 40억 부셸로 예상하였으며 평균 단수는 에이커 당 49.3 부셸로 예상하였음. 이는 지난해 USDA의 예측량 보다 많은 수준임.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부셸 당 8센트 하락한 \$9.67에 마감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박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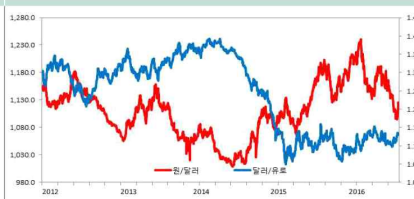
관련동향

- 밀 베이스는 일정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보험세 유지.
- 26일 국제유가는 예멘 미사일의 사우디 공격, 주요국 증시 상승 등으로 상승하였고, 미 달러화 강세는 상승폭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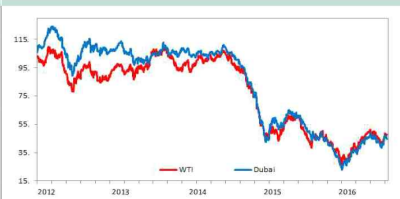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국제유가			
	기준일	전일대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81	▼0.5%	환율	원/달러	1,119.0	▼0.2%
	옥수수	167	▼0.6%		달러/유로	1.1286	▲0.2%
	대두	408	▼2.6%	국제유가	WTI	47.64	▲0.7%
	쌀	388	-		Dubai	44.62	▼2.1%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0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08.25(수출가격), '16.08.26(환율), '16.08.26(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전남도, “2016 A-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 참가

- 귀농·귀촌 최적지 홍보 등 도시민 유치활동 전개-

-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26일부터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6 A-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에 참석, 전남지역 귀농·귀촌인협의회 회원과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귀농·귀촌 유치활동에 나섰다.
- ‘A-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농업의 미래를 연다!’라는 주제로 농업을 지식과 정보, 기술이 결합된 창조농업으로 변화시키고, 농업 관련 창업을 활성화해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 정부, 자치단체, 유관단체가 참여해 약 160개 부스를 운영하는 초대형 박람회로, 홍보전시관 운영, 정책설명회, 토크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졌다.



【에너지 자립형 홍보관】



【전시관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

- 전라남도는 2018년까지 귀농·귀촌인 12만 7천 가구 유치를 위해 여수·나주·담양·구례·강진·영암·함평·진도 8개 시·군과 제2전시관에 상담 홍보관을 마련했다. 귀농·귀촌 홍보물 및 주요 농특산물 전시, 주택농지 정보 제공 등 수요자 맞춤형 종합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꾸준한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 제1전시관의 전남농업기술원 부스에서는 전라남도와 한국전력 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모델 전시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모델은 온도, 습도 등을 자동 조절하고 생산비 증가의 요인인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지열, 태양광 등 농업용 대체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한 농업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기술을 개발하고, 대규모 농가에 보급할 모델을 만드는 것은 물론 해외로 기술을 수출하고 온실가스 배출거래권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스마트팜 홍보】



【에너지 자립형 브리핑】

- 이낙연 도지사는 이날 전라남도 홍보관을 관람하면서 귀농·귀촌인 협의회 회원들에게 “귀농·귀촌인 유치는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극복하는 유력한 대안”이라며 “전남은 깨끗한 자연환경, 우수한 영농여건, 따뜻한 기후 등 귀농·귀촌의 최적지임을 적극 알리고 도시의 중장년층들이 전남에서 제2의 인생을 불편함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어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전시물을 둘러보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시설하우스를 가동하면 전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확보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여기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저탄소 농업 실현으로 생산물을 차별화해 전남의 친환경농업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라남도는 매년 박람회 참가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 수도권 현장교육 등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시책을 집중 홍보해왔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창업을 위한 사전 준비 정보와 지원정책 등을 알리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호박을 찾습니다

- 제14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 9월 5~13일까지 신청 받아 -

- “올해는 얼마나 큰 호박들이 모일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호박 등을 뽑는 ‘제14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가 주인공을 찾는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에 출품할 박과채소 참가신청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받는다. 호박·박·수세미·동아·여주 등 박과채소라면 모두 출품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선발대회 담당자 전자우편(jowon007@korea.kr)이나 채소과 팩스(063-238-6605)로 제출하면 된다.
- 참가 신청을 마치고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로 출품작을 보내면 된다.
- 출품작은 심사위원단이 품종 고유의 특성을 지니면서 크기가 큰 박과 채소를 중심으로 총 14점을 선정한다. 이번 대회의 대상 출품자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과 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 대회 입상작은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 풍암 호수공원에서 전시하며, 시상식은 9월 2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전시장에는 입상작 외에도 출품작과 박·관상용 호박·수세미·여주·뱀오이 등 희귀 박과채소 300여점도 만날 수 있다.
- 관람객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희귀한 박과채소를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박과채소로 만든 예술작품 등 관련 전시물도 관람할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우리 술 품질분석 정보 제공한다

- 총 75종 향미성분, 관능평가 등... 우리 술 신뢰도와 품질 향상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우리 술의 신뢰도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해 '우리 술 품질분석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생산농가와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현재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우리 술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가 없어 생산농가나 소비자가 우리 술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2014년 우리 술 품평회에 출품된 생막걸리 15, 살균막걸리 12, 약주·청주 11, 과실주 12, 일반증류주 7, 증류식 소주 7, 리큐르 11종으로 총 75종의 향미 성분과 관능평가 결과이다.
- 향미 성분은 일반 성분(알코올 등 10), 유기산(7), 유리당(10), 향기 성분(29), 유리아미노산(37항목)으로 총 93항목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 관능평가는 이화여자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외관, 향, 맛, 질감에 대한 특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림도표로 정리했다.
- 이와 함께 탁주·약주·과실주·증류주의 성분이 생성되는 과정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일반인이 우리 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우리 술에 대한 품질분석 정보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http://koreanfood.rda.go.kr>)-발효식품-우리 술 성분에서 볼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주간
전남농업정보 100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